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 2008년과 2022년 비교를 중심으로

오윤경¹⁾

요약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2008년과 2022년 두 시점에서 비교·분석하여, 시기별 변화 양상과 두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의 아동패널조사(2008)와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조사(2022)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2008년에 비해 2022년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은 2008년에 비해 2022년이 전반적으로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즐거움 감소'와 관련된 일부 문항에서는 2022년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2008년에 비해 2022년에서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질적 양육참여를 촉진하고, 어머니의 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차원적 가족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주제어: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 코호트

I. 서론

한국 사회는 급격한 저출산과 가족구조 변화 속에서 부모의 양육 환경과 역할 재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아버지의 육아참여 확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국가 정책

1)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경희대학교 유아·아동연구소 소장

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기업의 유연근무제 도입과 같은 제도적 변화와 맞물려 실질적인 아버지의 양육참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2025)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육아휴직 사용자 수는 총 132,535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남성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 31.6%를 차지하였다. 또한 2025년 1~2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는 전년 동기 대비 69.2% 증가하는 등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적 변화와 육아휴직 증가에도 불구하고 양육의 실질적 부담은 여전히 어머니에게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2025)의 생활시간조사에 따르면, 맞벌이 가구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 24분, 아내는 3시간 32분으로 2시간 이상의 격차가 나타났다.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은 최근 5년간 13분 증가하였고 아내의 노동 시간은 17분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현격한 차이가 유지되고 있다. 특히 맞벌이 아내는 외벌이 아내보다 더 많은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에게 가사·육아의 구조적 부담이 여전히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불균형은 어머니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배경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발달과 가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특히 자녀 출생 직후의 시기는 부모가 처음으로 부모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전이기(parental transition period)로, 양육스트레스의 증가, 부모 역할에 대한 혼란, 정서적 변화, 부부 갈등의 심화 등 다양한 적응 과제가 동반된다(Belsky, 1984). 이 시기의 특수성과 불안정성은 부모의 심리적 경험과 양육행동 전반에 영향을 미치므로,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 시기의 특성을 반드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 역할 초기의 심리, 행동적 특성을 중심으로 양육스트레스 및 양육 행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가족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하므로, 본 연구는 이 시점에 대한 이해를 통해 부모 및 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 전반에 걸쳐 가족 내 아버지의 역할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전환의 일환으로 이해되고 있다. 과거 전통적 성역할 구분이 약화됨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 역할로 자리 잡아가고 있으며, 이는 부부관계의 질과 가정 내 상호작용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윤해옥·연은모·최효식, 2015).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뿐 아니라 가족관계의 질, 부부관계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현도영, 2008).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

여는 어머니의 양육 경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어 왔다. 양육스트레스는 부모가 자녀 양육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적 부담과 긴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부부 간 양육 역할 분담의 정도와 아버지의 실제적 참여 수준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하는 특성을 지닌다(조하연·이주리, 2022). 실제로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고 정서적 안정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보고되고 있다(공수안·여종일, 2019; 장효은·김춘경, 2018).

한편, 가족체계이론(Family Systems Theory)에 따르면 가족은 상호작용을 통해 기능하는 역동적인 체계로, 한 구성원의 행동과 역할 수행은 다른 구성원의 정서적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Bowen, 197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가족 내 상호작용 과정에서 형성되는 상호 연관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가족발달이론(Family Development Theory)은 가족이 생애주기에 따라 역할 변화를 경험하며, 특히 자녀 출생과 같은 전환기에는 부모 역할 수행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Duvall, 1977).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사회·문화적 변화와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두 변인 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과 2022년에 수집된 국가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비교·분석하고, 시기별 변화 양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변화 속에서 부모 역할과 양육 경험이 어떻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교·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2008년과 2022년에 수집된 아동 관련 국가패널자료를 활용하였다. 2008년은 국내 최초의 한국아동패널조사가 실시된 시기로, 당시 아동의 발달 특성과 양육 환경을 체계적으로 파악한 기초자료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후 약 14년이 지난 2022년에는 사회·문화적 변화와 정책 환경의 영향을 반영한 새로운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가 구축되었으며, 이를 통해 아동 발달 환경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두 시기에 구축된 동일 연령대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국가패널자료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사회적 변화 속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보고된 배경 변수를 통제 변수로 설정하였다. 먼저, 자녀의

성별에 따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차이가 나타날 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 비해 딸과는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Bronte-Tinkew, Moore, Capps et al., 2006)가 있는 반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Keizer, Lucassen, Jaddoe et al., 2014). 다음으로, 영아의 월령 또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신생아를 둔 어머니는 출생 직후 스트레스 수준이 가장 높고, 생후 2주 이후 다소 감소하지만, 생후 6개월 전후 다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Maylott, Patel-Syed, Lebowitz et al., 2023). 이는 자녀 발달 시기에 따라 양육 부담이 변화함에 따라 어머니의 정서적 반응 역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어머니의 학력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양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목되어 왔다. 서정희(2016)는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아버지의 육아 관여 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Elder(1974)의 가족 스트레스 모형(family stress model)은 가구소득 수준이나 소득 감소가 가족 내 경제적 스트레스를 증대시켜 구성원 간 갈등이나 역할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설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옥선화·성미애·이재림(2003)은 경제적 압박 상황에서 전통적인 돌봄 역할이 여성에게 더욱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성별, 월령, 어머니의 학력, 가구소득을 통제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주요 논의를 바탕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2008년과 2022년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2008년과 2022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과 2022년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2008)와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2022)의 1차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녀의 월령이 3~11개월로 부모전이기에 해

당하는 표본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대상은 두 자료 모두에서 결측치를 제거한 후, 연구 변인에 모두 응답한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최종적으로 2008년 조사에서는 1,847명, 2022년 조사에서는 2,155명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2008년과 2022년 조사 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영아 성별은 2008년 조사에서 여아가 50.1%, 남아가 48.9%였으며, 2022년 조사에서도 여아가 51.1%, 남아가 48.9%로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영아의 월령은 2008년과 2022년 모두 만 5개월에 해당하는 영아가 각각 66.6%, 25.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출생순위에 따른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08년에는 해당 영아가 첫째인 경우가 944명(47.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둘째인 경우는 834명(41.7%), 셋째인 경우는 194명(9.7%), 넷째인 경우는 23명(1.2%), 다섯째 이상인 경우는 4명(0.2%)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해당 영아가 첫째인 경우가 1,329명(61.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둘째인 경우는 677명(31.5%), 셋째인 경우는 128명(6.0%), 넷째인 경우는 13명(0.6%), 다섯째 이상인 경우는 3명(0.1%)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연령은 2008년에는 20대가 32.3%, 30대가 62.2%로 대부분이 20~30대였으나, 2022년에는 20대가 14.0%로 감소하고 30대가 73.0%, 40대가 12.9%로 증가하여 어머니 연령이 전반적으로 높아진 경향을 나타냈다. 어머니 최종 학력은 2008년 조사에서 고등학교 졸업(30.8%)과 대학교 졸업(34.0%)이 가장 많았으나, 2022년 조사에서는 대학교 졸업 이상 비율이 63.9%(대학교 졸 54.1%, 대학원 졸 9.8%)로 증가하였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하 비율은 31.5%에서 15.1%로 감소하였다.

서로 다른 시점의 두 코호트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명목소득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물가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CPI)를 활용하여 2008년 가구소득을 2022년 기준의 실질소득으로 환산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물가 수준을 반영하여 환산한 실질소득을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8년과 2022년 간 소득 격차는 명목소득 기준에 비해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08년 한국아동패널과 2022년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패널은 서로 다른 시점에서 구축된 독립된 자료이지만, 전국 단위의 층화표집을 통해 수집된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따라서 각 시점의 영유아 가구를 대표하는 자료로서 시기 간 비교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두 표본 간 어머니의 연령, 학력, 가구소득 등의 차이가 일부 나타났으나, 이는 표본 구성의 차이라기보다는 해당 시기의 사회·인구학적 변화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여성의 고학력화, 출산 연령의 증가, 가구소득 수준의 변화 등 사회구조적 변동이 표본 특성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두 자료의 비교는 시기적 변화 양상을 탐색하는 데 유의미한 근거를 제공한다.

〈표 1〉 사회 인구학적 변수

변수		2008년 빈도(%)		2022년 빈도(%)		
영아성별	여아	942 (50.1)		1,101 (51.1)		
	남아	905 (48.9)		1,054 (48.9)		
영아월령	3			7 (0.3)		
	4	153 (8.3)		444 (20.6)		
	5	1230 (66.6)		547 (25.4)		
	6	257 (13.9)		393 (18.2)		
	7	101 (5.5)		288 (13.4)		
	8	86 (4.7)		221 (10.3)		
	9	15 (0.8)		172 (8.0)		
	10	5 (0.3)		78 (3.6)		
	11			5 (0.2)		
	영아 출생순위	첫째	944 (47.2)		1,329 (61.8)	
		둘째	834 (41.7)		677 (31.5)	
셋째		194 (9.7)		128 (6.0)		
넷째		23 (1.2)		13 (0.6)		
다섯째 이상		4 (0.2)		3 (0.1)		
어머니 연령	10대	2 (0.1)		1 (.00)		
	20대	595 (32.3)		302 (14.0)		
	30대	1,148 (62.2)		1,573 (73.0)		
	40대	98 (5.3)		279 (12.9)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12 (0.7)		17 (.8)		
	고등학교졸	566 (30.8)		308 (14.3)		
	전문대졸	529 (28.8)		454 (21.1)		
	대학교졸	623 (34.0)		1,165 (54.1)		
	대학원졸	105 (5.7)		211 (9.8)		
월평균 가구소득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429.600	197.400	474.000	209.720		

주: 2008년 월평균 가구소득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변환한 결과임.

2. 측정도구

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비교 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2008년과 2022년 조사 모두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강희경(1997)의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을 기반으로 구성된 ‘양육스트레스(Parenting Stress Scale)’를 통해 측정되었다. 본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역할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distress)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나.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홍성례(1995)의 30대 남편의 가족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에서 개발한 척도를 한국아동패널연구진이 일부 수정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로 명명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시 문항으로는 ‘남편은 아기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 준다’,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두고 돌보아준다’ 등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의 자녀 양육참여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77로 나타났다.

다.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보고된 영아의 성별, 어머니의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을 통제 변수로 사용하였다. 영아의 성별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여 남아를 0, 여아를 1로 설정하였고, 어머니의 학력은 대학원 졸업 여부에 따라 더미변수 화하여, 대학원 졸업을 1로 설정하였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지난 1년간의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08년과 2022년 자료를 통합한 pooled data를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시점 간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한 뒤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두 시점 간 비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group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여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요인적재량 동일성(metric invariance), 절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점에 따른 효과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연도 변수를 더미변수(2008년=0, 2022년=1)로 설정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연도 간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하였다. 이때 상호작용항 투입에 따른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고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연속변수는 평균중심화(mean-centering)를 실시한 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연도 변수를 추가하였으며, 3단계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연도 간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시점에 따른 영향력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가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21.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III. 연구결과

1. 2008년과 2022년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가. 2008년과 2022년 아버지의 양육참여

2008년과 2022년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2008년 아버지의 양육참여 총점 평균은 3.58점($SD=0.80$)이었으나, 2022년에는 4.11점($SD=0.78$)으로, 2008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양육참여 수준을 보였다($t=-22.03$, $p<.001$). 이러한 차이는 모든 문항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두고 지도한다.'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t=-21.01, p<.001$). 그 밖에도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t=-20.41, p<.00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t=-14.10, p<.001$),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 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준다’($t=-12.28, p<.001$)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2022년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2008년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표 2〉 2008년과 2022년 아버지의 양육참여

아버지 양육참여 문항	M(SD)		t
	2008 (n=1,847)	2022 (n=2,155)	
1. 남편은 아이에게 필요한 장난감이나 물품을 사다준다.	3.37(1.14)	3.88(1.21)	-14.10***
2. 남편은 아이의 습관이나 생활에 관심을 갖고 지도한다.	3.60(.95)	4.20(.90)	-21.01***
3. 남편은 아이에게 음식 또는 우유를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는 등의 일을 한다.	3.56(1.15)	4.24(1.00)	-20.41***
4. 남편은 아이와 함께 자주 놀아주거나 이야기 상대가 되어 준다.	3.78(.93)	4.13(.94)	-12.28***
아버지의 양육참여 평균점수	3.58(.80)	4.11(.78)	-22.03***

*** $p < .001$

나. 2008년과 2022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2008년과 2022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정을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2008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총점 평균은 2.74점($SD=0.61$)이었으며, 2022년은 2.56점($SD=0.73$)으로, 2008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t=8.43, p<.001$). 이러한 차이는 대부분의 문항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항목에서 가장 큰 차이가 관찰되었다($t=10.38, p<.001$). 그 외에도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t=9.05, p<.001$), ‘요즘은 육아 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t=8.47, p<.001$),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t=6.32, p<.00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t=6.19, p<.001$) 등의 문항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항목에서는 2022년이 2008년에 비해 오히려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t=-3.35, p<.01$), 이

는 다른 문항들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표 3〉 2008년과 2022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문항	M(SD)		t
	2008 (n=1,847)	2022 (n=2,155)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2.74(.93)	2.56(1.00)	6.19***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2.44(.88)	2.31(.97)	4.75***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2.44(.97)	2.11(1.04)	10.38***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2.19(.94)	2.08(1.06)	3.32**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2.25(.96)	1.97(1.00)	9.05***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할지 혼란스럽다.	3.32(.96)	3.04(1.15)	8.47***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2.40(1.01)	2.51(1.12)	-3.35**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3.53(1.03)	3.34(1.15)	5.39***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3.09(1.03)	2.90(1.25)	5.51***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2.98(.91)	2.78(1.06)	6.32***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평균점수	2.74(.61)	2.56(.73)	8.43***

** $p < .01$, *** $p < .001$

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는 통제변수인 아동 성별, 아동 월령, 어머니의 최종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과 주요 변수인 남편의 양육참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연도(2008=0, 2022=1)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먼저, 영아의 월령은 아버지의 양육참여($r=.09$, $p<.01$) 및 연도($r=.24$, $p<.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월평균 가구소득($r=-.04$, $p<.01$)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어머니의 최종 학력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r=.15$, $p<.01$), 아버지의 양육참여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r=-.03$, $p<.05$). 월평균 가구소득은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r=-.07$, $p<.01$).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냈으며($r=-.14$, $p<.01$), 연도와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r=.31$, $p<.0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연도와 유의한 부적 상

관을 나타냈다($r=-.12, p<.01$). 회귀분석에 앞서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산팽창 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검토한 결과, 모든 변수의 VIF 값이 기준치인 10 미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변수	1	2	3	4	5	6	7
1. 영아성별	1						
2. 영아월령	.03	1					
3. 어머니최종학력	.00	-.02	1				
4. 월평균가구소득	.01	-.04**	.15	1			
5. 아버지양육참여	.02	.09**	-.03	-.07**	1		
6. 어머니양육스트레스	-.00	-.02**	.01	.00	-.14**	1	
7. 코호트	-.01	.24**	-.08	-.19**	.31**	-.12**	1

** $p < .01$

3. 측정 동일성 검증

두 시점 간 비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동일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2008년과 2022년 간 측정동일성 검증 결과

모형	CFI	ΔCFI	RMSEA
형태동일성(Configural)	.851	-	.081
요인적재량동일(Metric)	.851	.000	.081
절편 동일성(Scalar)	.846	.005	.081

먼저, 형태동일성(Configural invariance) 모형의 적합도는 CFI(Comparative Fit Index)=.851로 나타나 수용 가능한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요인적재량 동일성(Metric invariance)을 검증한 결과, CFI=.851로 나타나 형태동일성 모형과의 차이가 $\Delta CFI=.000$ 으로 기준치(.01 이하)를 충족하여 요인적재량 동일성이 확보되었다. 마지막으로 절편 동일성(scalar invariance)을 검증한 결과, CFI=.846으로 나타났으며, 요인적재량 동일성 모형과의 차이는 $\Delta CFI=.005$ 로 기준치(.01 이하)를 충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두 시점 간 측정동일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잠재평균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2008년과 2022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Model 1에서는 영아성별, 영아월령, 어머니의 최종 학력, 월평균 가구소득을 투입하였으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F=21, p>.05$). Model 2에서 아동 성별, 영아월령, 어머니의 최종 학력, 가구소득을 통제하고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조사 시점 차이 효과를 살펴본 결과, 본 모형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 변량의 약 2.3%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R^2=.02, F=13.45, p<.001$).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지수는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9, p<.001$), 2022년 어머니가 2008년 어머니보다 낮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09, p<.001$). Model 3에서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조사 시점 간 상호작용 항을 추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시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beta=.51, p<.001$). 본 모형은 전체 변량의 약 3.2%를 설명하며, 유의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R^2=.03, F=15.58, p<.001$). 특히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2008년과 2022년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2008년에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22년에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 간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측정 동일성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시점 간 평균 차이 및 영향력 차이에 대한 해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결과 해석 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이 조사 시점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단순기울기 (simple slope)를 해석한 결과, 2008년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증가할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2022년에는 이러한 감소 효과의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는 두 시점 모두에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으나, 그 영향력은 2008년에 비해 2022년에서 약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그림 1]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변화를 2008년과 2022년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시점 모두에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2008년의 경우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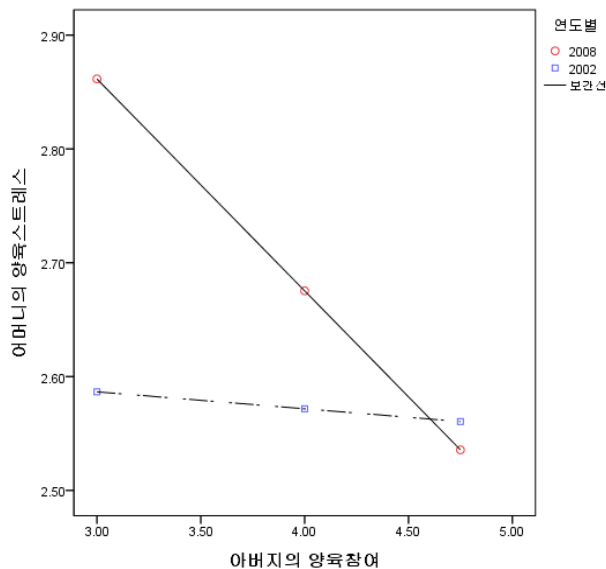
감소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2022년에는 기울기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타나 그 영향력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상호작용 효과 분석 결과와 일치한다.

〈표 6〉 2008년과 2022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을 예측하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변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Model 1		Model 2		Model 3	
	B(S.E)	β	B(S.E)	β	B(S.E)	β
상수	2.63(.02)		-3.04(.06)		3.432(.100)	
영아성별	-.01(.02)	-.01	-.01(.02)	-.00	-.010(.026)	-.00
영아월령	-.00(.00)	-.02	.00(.00)	.01	.008(.008)	.01
어머니최종학력	.02(.04)	.01	.01(.04)	.00	.016(.049)	.00
월평균가구소득	.00(.03)	.00	-.03(.03)	-.02	-.039(.030)	-.02
아버지양육참여			-.07(.01)***	-.09	-.186(.027)***	-.22
코호트			-.13(.02)***	-.09	-.788(.131)***	-.54
양육참여 상호작용항					.171(.034)***	.51
R^2	.00		.02		.03	
ΔR^2	-.00		.02		.03	
F	.21		13.45***		15.58***	

주: 아동성별은 남아=0, 여아=1, 어머니의 최종학력은 대학원 졸=1, 조사 시점은 2008년=0, 2022년=1 더미변수 처리함.

** $p < .01$, *** $p < .001$



[그림 1] 2008년과 2022년 아버지 양육참여에 따른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수준 변화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아동패널(2008)과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2022) 자료를 바탕으로,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의 양육참여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8년과 2022년 두 시점 간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022년에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전통적인 부양자에서 적극적인 양육자로 변화하고 있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김용훈·이경숙, 2022)와 일치한다. 더불어, 아버지의 가사 및 육아 참여를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책적 변화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의 양육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2008년과 2022년 두 시점 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2022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와 같은 정서적 부담 관련 문항뿐만 아니라,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와 같은 정보 관련 문항에서도 2022년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점수가 2008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 이는 최윤경·박원순·조경진·최현수 외(202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정부가 육아정보 통합 플랫폼, e-아동행복지원 시스템, 영유아 건강검진 자료 기반 관리, AI 기반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디지털 기반 제공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육아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 나아가 이러한 정보 환경의 개선과 선택 지원 체계의 보완이 어머니들이 겪는 정보 혼란과 인지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문항에서는 2022년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2008년에 비해 오히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다른 문항들과는 상반된 경향을 보였다. 이는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으로 인한 개인적 여가 및 삶의 만족도 저하는 여전히 중요한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정은주·이미선, 2013). 영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육아로 인해 개인적인 시간과 여가가 제한되며, 이는 삶의 질 저하와 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양육 관련 지원 정책은 정보 제공뿐 아니라, 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개인적 삶의 균형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셋째,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적극적인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도은·이희영·최태진, 2024). 즉, 가사 및 양육 역할을 부부가 함께 분담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족 내 정서적 지지를 강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은 2008년과 2022년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08년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데 보다 큰 영향을 미쳤으나, 2022년에는 그 효과가 다소 완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맞벌이 가구 증가, 육아지원 정책 확대 등 양육환경의 변화와 관련하여 설명될 수 있다. 즉, 과거에 비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가 특정 개인(아버지)의 역할에 의존하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사회적·구조적 요인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해석과 더불어 아버지 양육참여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기대수준의 변화 역시 중요한 설명요인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8년에는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추가적인 도움’으로 인식되었다면, 2022년에는 ‘기본적인 역할’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동일한 수준의 양육참여라도 어머니가 체감하는 부담 경감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확인된 영향력 감소는 단순한 효과의 약화라기보다는, 아버지 양육참여의 의미와 기능이 변화한 결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Keizer, Lucassen, Jaddoe et al., 2014; 조하연·이주리, 2022)와 맥락을 같이하며, 양육환경과 가족구조의 변화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 간 동일한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비교하였으나, 측정 동일성(measurement invariance)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시점 간 비교 연구에서는 척도가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 차이나 영향력의 차이를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른다.

특히 본 연구에서 2008년에 비해 2022년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은 증가한 반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 효과의 변화뿐만 아니라 척도의 의미가 시점에 따라 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사회적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와 함께 놀아주기’, ‘생활을 돌보기’와 같은 문항이 2022년의 어머니들에게는 선택적 참여가 아닌 기본적 역할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다집단 확인적 요인분석(multi-group CFA)을 활용한 측정 동일성 검증을 선행함으로써, 시점 간 비교의 타당성을 보다 엄밀하게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맞벌이 여부, 아버지의 근로시간 등의 주요 통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한계를 지닌다. 이로 인해 연구 결과 해석에 있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관련 변인을 포함한 정교한 분석이 요구된다.

V.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본 연구는 2008년과 2022년을 비교하여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버지의 실질적인 양육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강화가 필요하다. 연구 결과 2022년 아버지의 양육참여 수준이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동일한 수준의 양육참여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완화에 미치는 효과는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단순한 참여율 증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참여의 질과 지속성, 일상적 양육에서의 실질적 기여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버지의 참여를 형식적 수준에서 벗어나 구체적이고 정서적으로 밀착된 양육활동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프로그램, 양성평등 기반의 양육 역량 강화 교육, 기업의 아버지 육아휴직 실효성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어머니의 정서적 안정과 삶의 균형 회복을 위한 다차원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2008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아졌으나, '삶의 즐거움 감소'와 같은 문항에서는 오히려 2022년이 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양육정보 제공이나 서비스 접근성 개선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어머니의 개인적 삶의 질 저하와 정서적 소진을 반영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정신 건강 및 정서 지원, 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돌봄 서비스 보완, 육아에 지친 부모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고, 그동안 아이를 돌봐주는 부모 심포 프로젝트와 같은 회복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와 생활을 아우르는 통합형 육아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변화하는 가족 구조와 양육환경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아버지의 양육참여 효과는 시대적,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가구 증가, 핵가족화, 디지털 기반 육아환경 확대 등으로 가족 내 역할 구조와 스트레스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고정된 정책이 아니라, 가족 구성과 생

애주기, 소득 수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차별화된 유연하고 다층적인 육아지원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양육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양육참여 확대가 단순히 개인의 의지나 정책적 혜택에 국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양육 문화 조성 및 가족 내 역할 인식 변화를 위한 사회 전반의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 캠페인, 미디어 홍보, 학교 및 지역사회 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부모 모두의 심리적 안정과 양육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25). 2024년 일·육아지원제도 이용 현황 및 향후 계획 발표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
- 공수안·여종일(2019).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의 정서조절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양육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1(4), 47-67.
- 김기현·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도은·이희영·최태진(202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2), 785-805.
- 김용훈·이경숙(2022). 아버지 양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론적 고찰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5(3), 61-81.
- 서정희(2016).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 및 요구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옥선화·성미애·이재림(2003). 빈곤 여성가장의 삶의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 *Human Ecology Research*, 41(2), 65-92.
- 육아정책연구소(2008). 한국아동패널 조사 제1차년도 [데이터 파일]. 육아정책연구소. <https://panel.kicce.re.kr/pskc/index.do>
- 육아정책연구소(2022). 한국 영유아 교육·보육 패널 조사 제1차년도 [데이터 파일]. 육아정책연구소. <https://panel.kicce.re.kr/kececp/index.do>
- 윤해옥·연은모·최효식(2015). 어머니-아버지 간 아버지 양육참여 지각 차이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 간의 관계: 부부갈등, 우울, 긍정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1), 153-174.

- 장효은·김춘경(2018). 영아기 아버지 양육참여, 어머니 양육스트레스, 영아 심리사회발달과 유아기 또래상호작용 간의 종단적 관계 분석. *한국보육학회지*, 18(1), 77-102.
- 정은주·이미선(2013).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양육 어려움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부부 의사소통과 부모역할 만족도의 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18(4), 485-510.
- 조하연·이주리(2022). 영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가 지각한 아버지 양육참여가 부모역할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3(3), 187-200.
- 최윤경·박원순·조경진·최현수·이보람·김지원·김희수(2024). 육아 분야 디지털 전환 이행 현황 및 대응 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통계청(2025). 2024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보도자료]. 통계청. <https://kostat.go.kr>
- 현도영(2008). 가족 내 아버지 역할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홍성례(1995). 30대 남편의 가족 역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https://doi.org/10.1111/j.1467-8624.1984.tb00275.x>
- Bowen, M.(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orthvale, NJ: Jason Aronson, Inc.
- Bronte-Tinkew, J., Moore, K. A., Capps, R. C., & Zaff, J. F. (2006). The influence of father involvement on youth 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s: A comparison of native-born and immigrant families. *Social Science Research*, 35(1), 181-209.
- Duvall, E. M.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J. B. Lippincott.
- Elder G. H. (1974). Children of the great de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Keizer, R., Lucassen, N., Jaddoe, V., & Tiemeier, H. (2014). A prospective study on father involvement and toddlers' behavioral and emotional problems: Are sons and daughters differentially affected? *Fathering*, 12, 38-51. <https://doi.org/10.3149/fth.1201.38>
- Maylott, S. E., Patel-Syed, Z., Lebowitz, M., Leung, T. S., & Simpson, E. A. (2023). Maternal Stress: The First 14 Months Postpartum. *Parenting*, 23(3-4), 171-196. <https://doi.org/10.1080/15295192.2023.2269240>

- 논문접수: 2월 9일 / 수정본접수: 4월 10일 / 게재 승인: 4월 14일
- 교신저자: 오윤경,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강사, 경희대학교 유아·아동연구소 소장, oyk1452@khu.ac.kr

Abstract

Mothers' perceptions of fathers' involvement in childrearing and mothers' levels of parenting stress: A comparison between 2008 and 2022

OhYoonKyung

This study aimed to provide basic data comparing mothers' perceptions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levels and mothers' parenting stress levels at two points in time: 2008 and 2022. To this end, we conducted an analysis using first-round survey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Survey (2008) and the Korean 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Panel Study Survey (2022)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Child Care Policy. The analysis revealed the following results:

- First, the level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differed significantly between 2008 and 2022.
- Second, the level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lso differed significantly over this time period.
- Third, the level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significantly influenced mothers' parenting stress.
- Fourth, the effect of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on mothers' parenting stress differed between 2008 and 2022.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this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amily policies that promote fathers' parenting involvement. We hope that it will serve as a basis for developing practical policy measures to reduce mothers' parenting stress.

Keywords: Maternal perception, Paternal involvement, Parenting stress, Cohort